

# “40여 년 지났지만 내 친구 선업을 기억합니다”

### ‘서울의 봄’ 희생자 정선엽 병장 오늘 모교 동신고서 첫 추모식 명예회복 나선 친구·동문 주도…조선대, 명예졸업장 수여키로

“40여년이 지났지만 내 친구 선업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단 한 컷으로 지나갔지만,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광주일보 12월 1일자 7면)은 40년 넘는 세월에도 친구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1979년 12·12 당시 육군본부 B-2병역을 지키다 산화한 정 병장의 친구들은 영화 ‘서울의 봄’을 계기로 그가 산화한지 44년만에 처음으로 추모식을 연다.

추모식은 12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풍향동 동신고 체육관 옆에 식재된 ‘의로운 동문 고 정선엽 병장의 나무’ 앞에서 동문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정 병장의 친형 훈재씨는 미얀마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하지만 동생인 규상(64)씨가 참석한다.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재학중이던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지휘하는 공수부대가 국방부를 점령하기 위해 물려오자 끝까지 저항했다.

공수부대원이 정 병장의 M-16 소총을 뺏으려 하자 “중대장의 지시없는 무기를 쏠 수 없다”며 항거하다 공수부대원의 총 4발을 맞고 숨졌다. 당시 정 병장은 제대까지 석달만 남았었다.

정 병장의 동창들은 그를 ‘불의를 참지 못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동신고 7회 졸업생 정형운(67)씨는 정 병장과 막역한 사이로, 흥사단 활동을 하며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함께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서 형과 함께 자취를 하던 정 병장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한 사랑방이었다고 친구들은 회상했다. 흥사단 활동 동기와 학교 친구들은 매일같이 정 병장의 집에 모여 흥사단 정신인 ‘무실역행 충의용감(務實力行 忠義勇敢)’에 대해 토론하고, 라면을 끓여먹으며 동고동락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인 ‘공리공론을 배척하고 참되고 성실하게 힘써 행한다’는 흥사단 정신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이다.

정 병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180cm의 큰 키에 친구들 뿐 아니라 주변에서 항상 주목받고 인기도 많았다고 한다.

또 정 병장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재에 나섰다. 항상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공부와 흥사단 활동에만 전념했다.

정씨가 기억하는 정 병장과의 마지막 추억은 1977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 후 자원입



정선엽 병장을 기리기 위해 동신고에 심은 소나무.

대해 후가를 나왔을 때다.

정씨는 정 병장과 전복으로 여행을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시 정 병장은 “첫째 형이 제대하면 좋아하는 전기공학 관련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유학을 보내 주기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후 다시 정 병장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동신고 1년 선배인 김병태(68)씨는 형이라 부르며 곧잘 따랐던 정 병장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다고 회상했다. 흥사단이었던 김씨 역시 정 병장의 집을 사랑방 삼아 매일같이 함께 어울렸다.



고교 시절 기수단에서 활동한 정선엽 병장(맨 왼쪽).

(동신고동문회 제공)

김씨는 2017년 5월 임현모 전 총 동창회장과 이인권(66)씨, 전이양(67)씨 등과 함께 동신고 내에 정 병장을 기리는 기념수를 심는데 앞장섰다.

후배들이 정 병장의 의협심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김씨는 “학교에 심은 소나무(기념수)를 보면 꼭 선업이가 서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많이 그립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또 지난 2021년 국방부 산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회)에 정 병장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의뢰해 ‘순직’에서 ‘전사’ 결과를

받아냈다.

김씨는 “같은 날 신군부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소령에게는 훈장이 추서됐지만 선업이는 받지 못했다”며 “계급을 떠나 선업이의 의로운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훈장 추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대는 12일 오후 4시 교무회의를 거쳐 정 병장의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유족은 정 병장이 숨진 13일 새벽을 기억하기 위해 13일 수여를 원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수여 일시와 방식을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

## 전남대 의예과 419점·조선대 416점 정시 지원 가능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기준  
서울대 인문 401점·자연 412점  
광주교대 364점·켄텍 404점

2024학년도 전남대 의예과 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기준 419점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 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정보분석팀은 11일 수능을 치른 광주지역 고3 수험생의 국어·수학·탐구 3개영역 표준점수(영어·한국사 제외)를 토대로 산출한 정시 대학별 지원 가능점수를 공개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의 표준점수, 즉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다.

전남대 자연계열은 의예과(지역)는 419점, 치의학전대학원(치의학과) 413점, 약학부 408점, 수의예과 404점으로 예측했다.

전기공학과는 387점, 간호학과 361점, 수학과 362점이 지원 가능 점수대였다.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6점, 국어교육과 363점, 행정학과 362점, 경영학부는 361점, 정치외교학과 356점, 국어국문학과 354점, 인문계열 345점 안팎으로 봤다.

조선대 자연계열은 의예과(지역) 416점, 치의예과(지역) 412점, 약학과(지역) 407점, 간호학과(지역) 337점 안팎이 지원가능 점수로 추정됐다.

광주교대 지원가능 점수는 364점,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397점 안팎, 한국에너

지공과대학교는 404점대로 관측됐다.

서울대 인문계열은 401점, 자연계열 412점, 고려대-연세대 인문계열 398점, 자연계열 393점대로 분석됐다.

한편, 광주 대성여고 이서은양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 427점으로 광주·전남권 수석을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정시모집 대입지원을 위해 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14일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정시모집 지원 대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3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교부정소년 등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대비 집중상담을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 광주·전남경찰, 전담반 편성

광주·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 경찰은 이를 위해 27개(광주 5개, 전남 22개) 경찰관서 수사관 251(광주 45명, 전남 206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

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우산·두암·중흥동 수도관 세척…“흐린물 주의”

### 12일 밤 10시~13일 오전 7시

12일 밤사이 수도관 세척 작업으로 광주 북구 일대에 흐린 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2일 밤 10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북구 우산동, 두암 1~2동, 중흥 2~3동 일대 수도관을 세척할 예정이다. 북구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도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돼 수

도관을 세척하기로 했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세척 시간에는 수도관 내부 유속이 증가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수도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박중우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은 “세척 작업시간에는 되도록 수도물 사용을 자제하고 13일 오전 첫 사용 때에는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시립제2요양병원 직접 운영해야”

### 보건의료 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노조)는 11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위기에 처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시가 직접 운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내려면 300명 이상은 해야 하는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198명상으로 규모도 작고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10억원의 적자도 남아있는 상황”

이라면서 “병원 적자 문제는 노·사가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는 광주시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위기를 막고 공공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은 광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공공병원의 공익적자를 광주시가 부담하거나 공공병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

#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장묘 | 수목장·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 무료안치: 062-449-4446